

4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자 3만5천명

소득 상위 20%, 하위 20%의 44배 … 소득 격차 더 심해져

역대 연봉자와 고액 자산가들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소득격차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차익이 가장 큰 자산은 주식이었으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주택을 6채 이상 보유한 신고자는 18%에 달했다.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 46% 증가= 6일 국세청의 2007년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넘은 근로소득자는 6만8천600명으로 전년보다 29.4%(1만5천600명) 증가했다.

과표 8천만원은 연봉이 1억을 넘는 고소득자로 2001년 약 2만1천명에서 2002

억대 연봉자 29% 늘어

년 2만8천명, 2003년 3만1천명, 2004년 4만1천명, 2005년 5만3천명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

상인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3만5천924명으로 전년보다 46.3%(1만1천363명) 증가했고 이들의 금융소득은 6조8천60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7.2%(1조4천663억원) 불어났다.

이자·임대·근로·사업 등 종합소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고액소득자는 6천758명으로 전년보다 23.7%(1천296명) 증가했다. 이들의 부담세액은 2조4천366억원으로 전년보다 28.0% 늘어났다.

종합소득자 중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상위 20%(평균소득 8천473만원)와 저소득자로 분류할 수 있는 하위 20%(평균소득 191만원)의 소득격차는 44.3배로 전년의 38.3배보다 커졌다.

◇양도차익 주식 최고=자산별 신고 양도차익은 주식이 양도차익 100원당 75원으로 가장 높았고 토지 65원, 6억원 이상 고가주택 62원, 기타주택 31원, 기타건물 37원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부동산 신고양도차익은 서울

이 평균 1억5천24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천230만원, 인천 7천879만원 등의 순으로 수도권이 모두 상위를 차지

양도차익 전남 '꼴찌'

했으며 전남은 1천23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종부세 신고인원 중 주택은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비중이 70.2%를 차지했고 6채 이상 보유자의 비중도 18.3%에 달했으며 종부세 상위 10%가 주택은 종부세의 절반에 기록한 47.4%를 부담했다.

◇울산 근로자 평균급여 가장 많아= 과세표준이 있어 세금을 내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지역별 근로자의 연간 평균급여를 보면 대형 제조업체가 많은 울산이 4천58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인천이 3천609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과세표준이 있는 근로자들의 전국 평균급여는 4천47만원으로 일본의 90.7%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기업인, 내달 1일부터

공항귀빈실 이용 가능

기업인들의 공항귀빈실 이용이 다음달 1일부터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공항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인들의 자격에 대한 지침을 인천공항공사에 전달했으며 이달 중으로 최종 명단을 선정해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무부, 국세청, 경제단체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마친 결과 납세, 수출, 고용 창출 실적, 공정거래법 위배 여부를 선정기준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운송주체인 인천공항공사는 각 경제단체가 제출한 명단 가운데 이 기준을 적용해 이달 중으로 공항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인 40명 그리고 6월에 나머지 6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항귀빈실을 이용하면 별도의 수속 없이 바로 탑승이 가능하며 귀빈 전용 주차장 등을 쓸 수 있다.

/연합뉴스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작년보다 2만가구 줄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초과 공동주택이 작년보다 2만가구 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을 비롯해 버블세븐 지역 소재 아파트나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대부분 떨어졌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 934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안)을 7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견제출분에 대한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작년보다 31만가구 가량 늘었으며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2~3% 수준이어서 작년 상승률(22.7%)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주택가격이 안정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고가아파트나 버블세븐 지역, 신도시지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떨어진 경우가 많았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6억원초과 공동주택의 수는 작년보다 2만가구 가량 줄어 25만5천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 성장률 6% 아닌 3%에 그칠수도”

민간연구소 일제히 하향 조정 … 투자은행들도 낮춰

국내외 경제연구기관과 투자은행들이 당초 5%를 훌쩍 넘어서 것으로 예상했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전망을 일제히 하향조정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새 정부 목표치인 6% 대의 절반 수준인 3%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적인 전망을 내놓은 곳도 있었다.

6일 민간경제연구소들에 따르면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을 5.0%에서 4.7%로 무려 0.3%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데 이어 다른 연구소들도 하향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내내 발표할 예정인 ‘증장기 국내 경제전망’에서 당초 5.0%에서 4.9%로 내렸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추가로 하향조정할 계획

이다. 이내 연구위원은 “당초 예상보다 미국의 서브프리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각한데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세까지 겹쳐 세계경제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에 성장을 전망치를 추가로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다음달께 올해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성장을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주 원 겨시경제실장은 “세계경제여건이 위축 악화되고 있어, 성장을 전망을 하향조정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요 투자은행들도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평균 4.7%로 전망하고 있지만, 3%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

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은행별 성장을 전망을 보면 메릴린치가 5.5%로 가장 높았고 BNP파리바와 골드만삭스가 각각 5.0%를 예상한다. 이어 JP모건이 4.8%, 모건 스탠리 4.7%, 씨티 4.6%, 리먼 브러더스가 4.3%를 각각 전망했다. 도이체방크는 3.9%를 예상, 가장 비판적인 시나리오를 내놨다.

이들 8개 투자은행이 제시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전망 평균은 4.7%로, 아시아 주요국가 중 꼴찌에서 3번째다. 올해 우리보다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 곳은 대만(4.3%)과 태국(4.6%)뿐이다.

중국(10.3%), 인도네시아(6.1%), 필리핀(6.0%) 싱가포르(5.5%), 말레이시아(5.4%), 홍콩(5.3%)은 모두 한국보다 성장을 전망치가 높았다.

/연합뉴스



상큼한 냉이·봄동…

나른한 봄철에 입맛을 돋우는데는 신선한 봄나물이 최고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매장에 봄나물을 대표하는 냉이·봄동 등이 선보여 고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정몽준·정몽구 회장, 한국 ‘최고 부자’

미 포브스지 선정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해 5일 발표한 한국인 부자들 가운데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각각 28억달러(약 2조7천억원)의 재산 규모를 기록,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재산이 각각 20억달러로 집계돼 공동 2위에 올랐고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19억달러)과 신동주 일본롯데 부사장(18억달러)이 5위와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

자 전무는 재산이 17억달러로 추산되며 7위에 올랐다. 카카흐스탄의 구리 제련업체 ‘카카무스’를 성공적으로 경영한 차운규 씨는 14억달러의 재산 평가액으로 8위에 올라 ‘신흥 부호’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허정수 GS홀딩스 회장(12억달러)과 구본무 LG그룹 회장(11억달러)이 9위와 10위였다.

포브스가 선정한 전 세계 10위달러 이상 재산 소유자 1천215명 가운데 한국인 부호들의 순위를 살펴보면 정몽준 의원과 정몽구 회장이 41위, 이건희 회장과 이명희 회장이 605위, 신동빈·부회장과 신동주 부사장은 각각 652위와 677위였다.

포브스는 “포브스지 선정한 전 세계 10위달러 이상 재산 소유자 1천215명 가운데 한국인 부호들의 순위를 살펴보면 정몽준 의원과 정몽구 회장이 41위, 이건희 회장과 이명희 회장이 605위, 신동빈·부회장과 신동주 부사장은 각각 652위와 677위였다.”

/연합뉴스

포브스 선정 세계 부호 명단	
1. 월드 베스트	77 대구 520
2. 캐피탈 슬럼	68 맥시고 500
3. 일 케이프	52 대구 380
4. 럭시아 디탈	57 인도 450
5. 브루스 페터니	50 경북 430
6. 리날 드라비니	48 인도 420
7. 헤리트리 커뮤니케이션	41 스웨덴 310
8. KP 싱	76 인도 300
9. 플리그 라이브스포츠	40 러시아 280
10. 리차드	79 홍콩 265
412. 정몽준(한나)	56 한국 24
412. 정몽구(한나)	70 (미국 봄동)
605. 이건희(신세계)	64 20
652. 신동빈(롯데)	53 19
677. 신동주(롯데)	54 18
701. 터키(한국)	39 17
843. 차운규(카카무스)	61 14
902. 허정수(현대)	59 13
1014. 구본무(LG)	53 9

©포브스

주가 하락에도 ‘돈 잊지 않는 비결’

일시적 시장 충격·수급상황 악화에도 가치주는 건재

워렌버핏, 가치투자로 연 20%이상 복리수익률 올려

소외되어 있는 주식이므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인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온통 시장에 정신이 팔려서 지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생각할 때 가치투자자들은 그 주식이 싼지 비싼지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시장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짜릿한 수익률을 기대하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가치투자 방식은 ‘재미없는 투자’ 방식일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다. 가치투자의 대명사로 세계 1위의 부를 일군 워렌버핏의 경우 연 수익률을 기준으로 펀드 순위 10% 안에 들어간 적이 없지만, 투자 기간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 적도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수익률을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잊지 않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가치투자의 방식이다. 이런 까닭에 상승장에서는 모멘텀 투자에 비해서 수익률이 저조하지만, 하락장에서는 방어능력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치주는 현재 인기가 있는 주식이 아니라

자를 지향하는 펀드의 성적은 동일 유형의 펀드에 비해 우수하다.

우리나라 가치투자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한국밸류자산운용의 이재원씨와 신영투신운용의 허남권씨가 각각 운용하고 있는 펀드는 동일 유형의 펀드에 비해 변동성이 낮으면서 지속적으로 비교우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밸류10년주식형펀드는 2006년 4월에 설정돼 누적수익률이 62%로,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29%)을 상회하고 있다. 또 신영마라톤주식형펀